

투데이 칼럼

물에서 인생 '한수'를 배우다

물은 지구면적의 약 70% 이상을, 사람의 몸은 70%를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물만 잘 마셔도 80%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생명을 이어가며,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식량을 공급받는다. 물은 인간에게 더없이 이로운 존재이며 보물이다.

그리스 자연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며 우주근원과 자연의이치를 밝혔다. 중국의 관중(管仲)은 '물은 만물의 본원(本源)'이며 제생(養生)의 종질(宗質)이라고 정의했다.

노자(老子)는 물의 본성은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세상에서 가장 선(善)한 것이 물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다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거처한다. 그렇기에 도(道)에 가깝다'고 했다. 공자(孔子) 또한 '지혜로운자는 물을 좋아한다(知者樂水)'고 했다.

손자(孫子)는 물은 유연함과 결손함, 위대한 적응력이 있어 '순응과 순리(順理)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철학을 깨우쳐준다고 했다. 탈무드에도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라며 물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했다. 모든 것의 근본을 다루는 학문의 중심에는 물이 항상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물은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혜택과 배워야 할 지혜가 넘친다. 필자는 물에서 느끼고 생각한 삶의 지혜를 몇 가지 뽑아서 요약해 보았다.

첫째, 물은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비롯되며 모든 생명체의 생존은 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있다. 생명체에 있어서 물이 아발로 절대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둘째, 물은 낮춤이다. 물은 언제나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을 빠짐없이 적서준위 마침내 드넓은 바다에 도달한다. 모든 사람들이 낮다고 비웃을 때, 물은 결국 아래로 흘러가게 큰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

셋째, 희생과 배려다. 물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너그러운 배려도 있다. 나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있다.

넷째, 물의 공평함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물은 조금만 상·하의 차이가 있어도 반드시 아래로 흘러서 수평을 유지한다. 수평은 곧 공평이며 평등사상이다.

다섯째, 물은 자비상이다. 물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조화를 이뤄 자비를 베푼다. 물은 서로 만

나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섞으면 하나가 되니 화합의 최상이다.

여섯째, 부지런함이다. 운산도의 오우가(五友歌)중 물에 대한 시조가 있다.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한다./ 바람서리 맑다하나 그칠 때가 하도 많다./ 좋고도 그치지 않은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물은 부지런하다./ 바람서리 맑다하나 그칠 때가 하도 많다./ 좋고도 그치지 않은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물은 부지런하다. 물은 잠시도 멈출 바를 모르고 불철주야 끊임없이 흘러서 스스로 자연정화(自然淨化)를 한다.

일곱째, 물은 발전의 원천이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막에 불과하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더스, 나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덟째, 물은 치유능력이 있다. 물은 무색무취지만 모든 생명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질병예방에 물은 기본이고 필수다. 의학에서도 물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물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물처럼 생각하고, 물처럼 살아간다면 '정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처럼 산다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일겠는가.

김재춘

전 원주 동양초등학교장



독자제언

안전띠는 생명띠 의무적으로 착용 해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처음으로 300만대를 넘었고 그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 2천여 명 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15년 자동차수는 2,000만대를 돌파했고 사망자 수가 1998년을 기점으로 1만 명 이하로 차츰 줄어들어 2015년 4,600여명까지 감소했다. 수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이상 줄었으니 괄목한 민하게 좋아진 수치라 여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25년간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여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라진 셈이다. 더군다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사고이후 72시간 이내(현재는 1월)인 것만 통제로 잡혀 실질적인 사망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웃돌 것이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 20만 명의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다면 수백만 명이 잊지 못할 뼈아픈 슬픔과 고통을 안

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기준 OECD회원국의 평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명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높은 10.9명이다. 또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비교해도 OECD회원국의 평균 사망자수는 1.1명이나 우리나라는 2.0명으로 평균을 웃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든 저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통사고 OECD 34개국 평균보다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1년 발생하는 4600여명의 사망자수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뒤떨르고 이에 비하여 안전띠 착용은 용이하게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오프라이 뿐 아니라 자전거 헬멧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것이다. 박준한 익산경찰서 원주파출소장 경감

독자제언

음주운전의 유혹 과감히 떨쳐내야

2016년 새해도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간다.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특히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그 다짐을 지켜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회화통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임에 나가게 되고, 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요즘 맛있는 과일향이 나는 술까지 등장하여 음주 유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고 한다. 더욱이 음주단속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얻어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강·아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음주단속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을 생각을 말고 안전하게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서도 음주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 순간의 실수가 가져오는 대가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다룬다 보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하며 주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평소 성격이 착하든 나쁜든, 남근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설마' 하는 생각을 접어두고 더욱 조심해야 하며, 혹시라도 본인의 의지가 부족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지금 음주운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자. 한성민 전주원산경찰서남문지구대

사설

전북도, 살림살이 잘 해야 한다

전북도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살림살이를 잘 해야겠다. 최근의 보도를 보니 이것은 아니지 싶다. 빛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민하기는 고사하고 돈을 해 뜨게 쓰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재정자립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도민들은 아무래도 예전 그대로의 정서이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살림을 규모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 문제이든 교육 문제이든 지출이 너무 많아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저번에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망각해선 안 된다. 늘 풀쩍 수준이었던 전북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올해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가 1천백조 원을 돌파해 위험 수준인데 그것은 전북 지역이라고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금 정치 계절 운운하고들 있는데 위정자를 대다수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 별 일이다. 지난날 화려한 장밋빛 전망들이 물거품이 돼 없어져버렸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 의식을 말하는 이가 없으니 말이

다. 지금 전북 경제의 현실은 결코 속이 다르다. 말 그대로 속빈 강정 풀이다. 전북도는 도민을 위해서 살림살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도민들은 계속해서 경제 불행 지수를 말해야 할 형편이다. 요즘 전북 경제의 흐름을 보면 희망을 읽을 수 없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전북도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전북도가 7.1%의 부채증가율을 보여 전국 3위에 랭크됐음에 반하여 이웃의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부채 감소율이 7.4%나 꽤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전북도는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한다. 많은 부채를 지고서는 살림을 잘 한다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전북도는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해야겠다.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진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본받아야 한다. 제발이지 재정 자립도 풀쩍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자리 창출 활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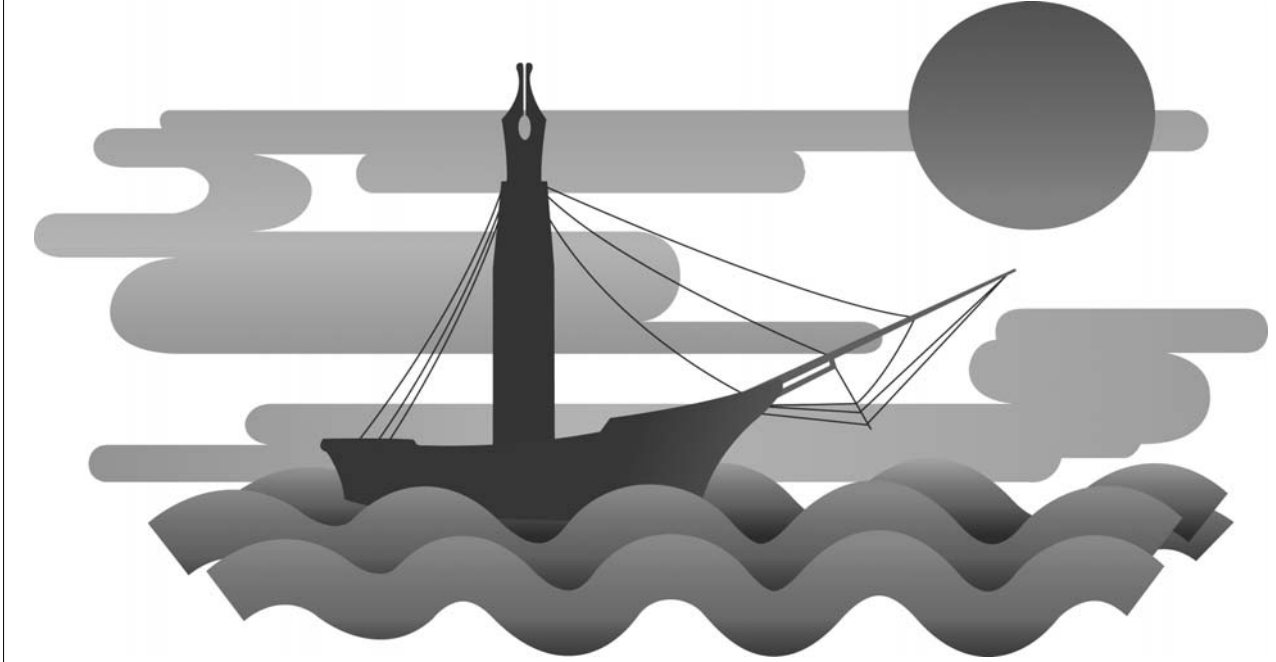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야겠다. 병행하여 고용안정도 제대로 되어야겠다. 전북도가 도내 근로 빈곤층을 챙기겠다고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나서 하는 말이다. 여러 현안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각 시군 지지체도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러 번 약속해마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은 가난한 근로 세대들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한 주문은 상투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근로 시민세대하고 맞지 않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도 애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현실을 보면 암담한데도 말이다. 정말로 기대한 만큼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싶다면 지금 이려고 있는 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생각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실제 여부는 도내 실제 거주 인구가 말해준다. 전북 지역의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됐음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말이 안된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전북도는 생각도 많아야 하고 행보도 많아야 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의 창출과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다면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괄목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그런데 도내 현실을 보면 저소득자 비율이 예전 그대로 여전히 높다. 일자리가 없거나 낮은 보수의 일자리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올해도 삼분의 일이 가버린 지금,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